

LG화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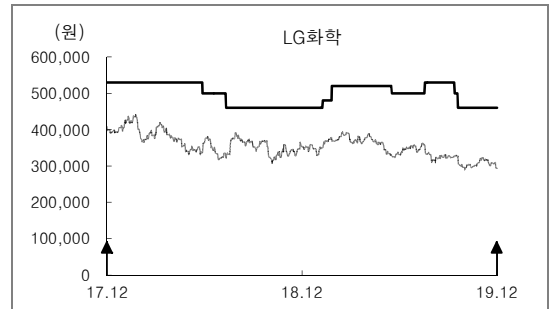
(051910/매수)

GM 배터리 셀 JV 설립 보도 코멘트

- 전일 로이터는 LG화학과 GM이 **23년까지 총 23억달러**를 투자해 배터리 셀 JV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.
- 공장 건설은 2020년 중반 시작되어 21년부터 출시될 GM의 차세대 EV에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. GM은 이번 JV를 통해 전기차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**배터리 생산 설비는 30GWh 이상이 될 전망.** 19년 말 현재 LG화학의 생산 설비는 70GWh 수준임. 30GWh가 완전 가동될 경우 매출액은 약 4조원 규모로 추정됨. 수익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과점적 배터리 시장 특성상 낮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.
-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마진도 일정 부분 향유할 수 있는 JV에 관심이 높음. LG화학 역시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JV 전략에 우호적인 만큼 **이 같은 JV 추진이 향후 가속화될 수 있음.**
- 최근 LG화학의 주가는 화학 및 ESS 부문의 부진 우려로 하락 중. 다만 **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사업 가치는 변화가 없고 더 확대될 수 있음.** 매크로 우려 완화 시 탄력적 주가 회복 기대

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

제시일자	투자의견	목표주가(원)	과리율(%)	
			평균주가대비	최고(최저)주가대비
LG화학(051910)				
2019.09.24	매수	460,000	-	-
2019.09.18	매수	500,000	-34.67	-34.20
2019.07.24	매수	530,000	-38.83	-36.32
2019.05.23	매수	500,000	-31.12	-27.70
2019.01.31	매수	520,000	-29.23	-24.13
2019.01.14	매수	480,000	-23.13	-21.04
2018.07.17	매수	460,000	-23.96	-15.00
2018.06.03	매수	500,000	-31.09	-23.90
2017.10.26	매수	530,000	-26.27	-16.70



* 과리율 산정: 수정주가 적용,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

투자 의견 분류 및 적용 기준

기업	산업
매수 :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%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	비중확대 :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
Trading Buy :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%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	중립 :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
중립 :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-10~10% 이내의 등락이 예상	비중축소 :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
비중축소 :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-10%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	

매수(▲), Trading Buy(■), 중립(●), 비중축소(◆), 추가(—), 목표주가(—), Not covered(■)

투자 의견 비율

매수(매수)	Trading Buy(매수)	중립(중립)	비중축소(매도)
84.57%	9.88%	5.55%	0.00%

*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LG화학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